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홈페이지 www.uca.or.kr • 전화 031-850-1400(대표)

124위 복자

복자 구성열 바르바라

(1776? -1816)



충청도 홍주의 한내장별(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출신인 구성열 바르바라는 성품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있었다. 1801년 신유박해 이전에 입교한 그녀는 첫 남편을 잃고 서석봉 안드레아와 재혼하여 '서 과부'로 불렸다.

구 바르바라 부부는 사위 최봉한 프란치스코 부부와 함께 청송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리)의 교우촌에서 생활하였다. 1815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된 그녀는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한때 마음이 약해져 배교할 생각까지 품었지만, 사위 최 프란치스코의 권면을 듣고 다시 신앙을 굳게 다졌다.

이후 남편과 사위, 다른 교우들과 함께 대구로 압송된 그녀는 여러 차례 형벌을 받으며 17개월 넘게 옥중 생활을 견뎠다. 그동안 남편과 사위는 형벌 끝에 옥사했지만, 구 바르바라는 끝까지 신앙을 증언하였다. 사형 판결을 받은 그녀는 1816년 12월 19일 대구 형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약 40세였다. 시신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이 거두어 안장하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소리 주보 ▶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 8,31ㄴ-39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가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

오늘은 어쩌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코린토 2서 8장과 9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짧게 한두 줄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길게 설명합니다.

앞서 코린토 1서의 끝부분에서(16,1-4) 이미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신자들을 위한 모금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1코린 16,1)라고 하는 것을 보면, 코린토 교회에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방법도 상세하게 지시합니다. 모금한 것을 가지러 갈 때 비로소 돈을 모으지 않도록, 매주 첫날에 집에 돈을 따로 모아 두라고까지 일러두는 것이지요. 그런 설명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너무 치밀하게 모금에 대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코린토 2서에서는 티토와 다른 형제 한 사람을 코린토 교회로 보내면서 다시 모금을 독려합니다. 먼저 마케도니아 교회 신자들의 예를 듭니다. 마케도니아 신자들은 코린토 신자들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닿는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내놓았고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2코린 8,4)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쩌면 은근히 돌려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잘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신자들이 예루살렘 신자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해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에서 바오로 사도는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부유하시면서도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어, 그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2코린 8,9 참조).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 삶의 모든 한계를 받아들이시고 죽음까지 겪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만 잘살겠다고 내 소유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이 사소한 것이라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정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 자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코린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남으로 여기지 않고 한 몸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같은 식구끼리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 모금을 보내는 것은 그들 사이에 실제적인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한 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2코린 9,13)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 후의 마리아

「교회헌장」 제58 항 후반부 제59 항

「교회헌장」 제58항 후반부는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아드님과 결합하면서 특별히 어머니께서 걸으셔야 했던 고통의 길을 언급합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신앙의 나그넷길을 걸으셨고, 십자가 아래 이르기까지 아드님과 깊은 결합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 곁에서 계시어 아드님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요한 19,25 참조). 나아가 당신에게서 태어나시어 희생 제물이 되신 아드님과 사랑으로 일치하셨습니다. 아드님의 희생 제사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결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맡겨 주셨습니다. 이로써 마리아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모님의 삶이 신앙의 나그넷길로 표현되는 것은, 당신께서 아드님과 최고의 결합을 이루셨음에도 그 안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인간적 물이해도 함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모칠고(聖母七苦)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59항은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신 성모님의 삶을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기 전까지 구원의 성사인 교회는 아직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

다. 이에 사도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사도 1,14)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도 당신의 몸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시리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신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기도로

청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어머니가 오롯이 성령의 강림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하기를 간절히 청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의회는 끝으로 마리아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교황령(Constitutio Apostolica)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통해 ‘성모 승천’을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천지의 모후로 들어 높이셨다.
_벨라스케스의 〈성모 대관식〉 부분, 프라도 미술관

성모 승천은 마리아의 모든 삶이 하느님 안에서 완성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그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 온전히 하느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마리아를 “천지의 모후”로 들어 높이셨으며, 성모님께서서는 “주님들의 주님”(묵시 19,16)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아드님과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 2026년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제 -

최근 뉴스에서는 네팔과 티베트의 홍수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된 가운데,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인터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번 홍수로 우리 마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이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가족을 잃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폭력과 착취, 인신매매와 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보호해 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은 더욱 쉽게 외면받으며, 어린 시절의 상처는 몸과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것은 물론 미래의 꿈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올해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은 우리에게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라도”라는 주제를 전해 줍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구해야 한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한 명의 어린이라도 소중하게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7).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 하나’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이주민과 난민 어린이들도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다시 꿈꾸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쟁과 폭력, 가난과 재난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이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교구는 올해로 9년째 ‘1본당 1난민가정 동행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으며 친구가 되어 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교육과 신앙생활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주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주와 난민의 문제는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만든 전쟁과 폭력, 박해와 차별, 기후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아이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을지도 모릅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친구가 되어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은 그 아이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습을 지키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과 난민 어린이들 가운데 단 한 명에게라도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복음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

교구
소식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9/27(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지하1층 대강당

주례 김종민 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루시아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0/2(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제41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시 10/16(금) 19시~18(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9 가정사목부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10월, 11월(대침묵 피정)

	10월	11월
날짜	10/16(금)~18(주일)	11/13(금)~15(주일)
강사	이성만 토마스 신부	최대환 세례자 요한 신부
주제	나는 천주교인 입니다.	아리스 모리엔드: 죽음에서 좋은 삶을 배우기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집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의정부교구 생태영성학교-기본 및 심화과정

일시 10/10(토)~11/14(토) 19시~20:30

장소 교하성당 성전(파주시 책향기숲길 62)

준비물 회칙 〈찬미받으소서〉, 개인컵

마감 10/2(금)까지

교육비 3만원(우리은행 1005-804-525077 재)천주교의정부교구)

신청 전화 및 QR코드 신청서 작성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신청서 ▶



의정부 경제인 회원 모집

신앙 안에서 교류하며 나눔과 봉사를 함께할 경제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의정부교구 경제인 활동 신앙나눔, 봉사 친교

문의 010-4357-1386 사무총장 조태형 분도

특별헌금

결과보고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 농민주일 특별헌금으로 129,565,519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생태환경위원회로 보내져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평신도를 위한 침묵피정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일시: 10/23(금)~25(주일), 1인1실
장소: 서울 성가소비녀회 총원 교육관(4호선 길음역)
접수: 10/16(금)까지
추치 및 문의: 02-2135-9398 한국CLC

천송이 천번 기도회 및 철야 기도회

천송이 천번 기도회
일시: 9/21(월) 12:30~17시
철야 기도회
일시: 매주(화) 21:30~익일 오전 4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미사, 안수, 중식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치유의 숲길: 11/21(토)~23(월), 12/4(금)~6(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11/26(목)~29(주일), 12/7(월)~9(수)
동백꽃길: 1/15(금)~17(주일), 1/24(주일)~26(화)
한라산 눈꽃산행: 1/29(금)~31(주일), 2/19(금)~21(주일)
산들말씀피정: 2/26(금)~28(주일)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10/16(금)~19(월) 11/20(금)~23(월)
12/18(금)~22(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쉼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오름·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추자도 포함 성지순례: 11/26(목)~28(토)
올레길 포함: 10/13(화)~15(목)
10/17(토)~19(월), 10/23(금)~25(주일)
11/1(주일)~3(화), 11/13(금)~15(주일)
11/17(화)~19(목), 11/21(토)~23(월)
연말연시(한라산): 12/31(목)~1/3(주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9/22 이상기 회장, 9/29 배갑진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ICPE 선교회 SONE 피정

용서와 치유, 해방을 통한 새로운 복음화
일시: 10/1(목)~5(월), 꽃동네 영성원
강사: 구마사제, 국제치유말씀봉사자
문의: 010-9032-8022, ICPE카톡 플친



교육 · 모집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작곡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10/12(월)~23(금)
전형일: 11/13(금) 최양업홀
문의: 02-740-9876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9/21(월)~10/6(화)
전형: 10/17(토) / 문의: 02-705-8668~9

부모를 위한 무료 온라인 특강

주제: WYD를 통한 자녀신앙 전수
일시: 11/22(주일) 15:30~17:30
주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강사: 햇살사목센터 조재연 신부,
천진아, 이세라 연구원
문의: www.hatsal.or.kr, 02-744-0840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시스피나음악원: 매주(금) 10시
문의: 010-9842-8818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8437

에파타혼성합창단 정기 단원모집

연습: 매주(금) 19:30
장소: 녹양동 성당
문의: 010-7364-2100 단장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뜨락'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종교무관) / 회비: 무료
일시: 10/21~11/25, 매주(수) 14시~17시 [6회]
장소: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남양주시 별내동)
문의: 010-9766-2204 김미희 수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채용

분야: 행정 사무(번역) (정규직 전환 가능)
제출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소식 참조
마감: 10/16(금) 14시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

오르간 반주 봉사자 모집

일시: 주 1회 / 평일 06시 또는 주일 10시
장소: 성 요셉 수도원(남양주시 별내동)
모집: 연중 수시 모집 / 봉사료 협의 가능
문의: 010-9798-8115

가좌동 성당 피아트성가대 반주자 모집

자격: 피아노 및 오르간 전공자, 교중미사 경력자
지원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접수서류 반환 없음)
접수: nodagi@uca.or.kr
서류심사 후 면접(개별통보)
문의: 010-2623-2408 단장

〈신앙의 눈으로 만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시즌2〉

일시: 10/8~11/26 매주(목) 20시
장소: 백석동 성당
등록비: 5만원
강사: 강한수 신부, 최대환 신부, 김재근 신부,
고종희 마리아 교수, 박찬이 율리안나 작가
※2027년 강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가 예정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피정

1차: 1/2(토)~3(주일), 2차: 2/19(금)~20(토)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선착순) / 회비: 11만원(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매월 첫째(주일) 14시	서울 혜화동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	010-4344-1997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수시	전화상담 후 결정	010-3800-1579

피에타스 가톨릭 합창단 단원 모집

자격: 성가대 경험 있으신 65세 이하 교우

일시: 매주(수)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안내 · 기타 ▶▶

성심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0/14(수)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10/23(금) 튀르키예 그리스 순례 12일

11/16(월) 베트남 라방성도 성지순례 5일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10/26(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12일)

11/13(금) 홍콩. 마카오(4일)

11/2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2/1(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5일)

1/5(화) 홍콩·마카오(4일)

1/19(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2/5(금) 말레이시아(페낭, 말라카, 쿠알라룸푸르
(5일)-구정연휴

2/6(토)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구정연휴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나자렛투어 해외 성지순례

27년 2/22(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449만원

27년 5/3(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509만원

27년 5/11(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499만원

본당 및 단체 단독 맞춤형 성지순례 전문

문의: 나자렛투어 고객센터 1577-7029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0/26(월) 프랑스 성모발현지(12일, 595만원)

10/28(수) 발칸, 메주고리에(11일, 495만원)

11/2(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515만원)

11/9(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12일, 570만원)

12/9(수)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0일, 대한항공)

27년 1/23(토) 스페인남부와포르투갈

(12일, 58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3(화) 이탈리아 일주 전대사 특전(11일)

11/9(월) 알프스와 중부 유럽 수도원(12일)

1/11(월) 일본 나가사키 운전 히라도(4일)

1/11(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13일)

1/12(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12일)

1/26(화) 베트남 남부 (사이공) 5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22(화)~26(토) 성탄 필리핀(195만원)

27년 2/2(화)~9(화) 멕시코 과달루페(565만원)

27년 3/6(토)~16(화)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495만원)

27년 3/6(토)~15(월) 영국, 아일랜드(610만원)

신청 및 문의: 02-2281-9070

성 앙베르 센터(피정의 집) 직원 모집

인원: 주방근무자 1명(단체급식경력우대)

주5일 근무(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제출서류: 각 1 부씩

① 응시원서: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② 주임신부님 추천서 ③ 교적증명서

접수: imbert@seoul.catholic.kr 이메일

근무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46길 35

성당으로 찾아가는 공연 안내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성당으로 찾아갑니다.

사순시기-〈수난기〉

연중시기-음악극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음악극 〈거룩한 미사〉

연극 〈재수탕이시몬〉

공연문의: 010-5617-0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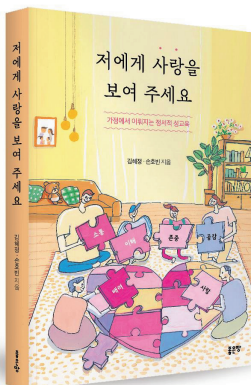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대전교구에서 위탁운영, 치매전문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성사 생활 가능(사제, 수녀 근무)

문의: 041-950-1008



가정에서 이뤄지는 정서적 성교육

저에게 사랑을 보여 주세요

김혜정 · 손호빈 | 좋은땅출판사 | 128면 | 16,800원

문의 |

신/간/소/개

이론을 넘어 삶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정서 코칭 가이드 『저에게 사랑을 보여 주세요』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성적 정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불안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 성교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도서출판 좋은땅의 신간

『저에게 사랑을 보여 주세요』는 이러한 부모들의 막막함에 따뜻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정서적 성교육 지침서이며, 가정이 사랑의 규칙과 인격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이자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36회 가톨릭미디어콘텐츠대상 공모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구, 한국가톨릭매스컴대상)은
가톨릭 정신과 가치를 드높이고 건전한 미디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작품과 인물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가톨릭 교회의 상입니다.

2026년 '제36회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 공모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훌륭한 작품과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모 부문

- 방송 영화 부문
(TV, 라디오, 영화, OTT, 애니메이션 등)
- 뉴미디어 부문
(유튜브, 페이스북[메타], 인스타그램, 블로그, 팟캐스트, 웹툰, 오디오북 등)
- 신문 잡지 출판 부문
(신문, 잡지, 출판 등)
- 공연 예술 부문
(연극, 뮤지컬, 공연, 하이브리드 융복합 공연[전시] 등)

I 출품 자격 및 심사 기준

-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최초 발표된 작품
- 가톨릭 정신의 보편적 가치 제시, 가시적인 결과나
업적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정도, 출품작의 질적 완성도

I 제출 서류

- 공모 작품(콘텐츠, 요약본 필수), 지원서, 추천서,
* 제출 양식과 자세한 설명은 공모 전용 홈페이지(QR코드 참조) 및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I 접수 및 제출처

- (04918)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 mscm@cbck.kr
- 2026년 10월 15일(목) 까지

I 시상

- | | | |
|-----|--|----------------------------|
| 대 상 | | 상패와 상금 500만 원 |
| 부문상 | | 상패와 상금 각 300만 원 |
| 특별상 | | 상패와 상금 300만 원 (해당자가 있는 경우) |

I 시상식

2026년 12월 3일(목) 오후 5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I 문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02)460-7625
<https://cbck.or.kr> 알림마당 참조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성모뎡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화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미사 후	수, 목, 금	19: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9월 20일 소사아가다: 배성은
21일 마태오: 이은혁

공 지 / 단 체

- 9월 사목협의회
일 시: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9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27일 추석 연휴로 인하여 한 주일 앞당기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0월 병자 영성체
일 시: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10월 성시간
일 시: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10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 교구 성지 개발 2차 헌금
오늘은 교구 성지 개발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동절기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동절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변경 시작: 10월 3일 토요일부터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접수

합동 위령 미사 시간: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9월 20일 주일
까지 본당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미사 시작 전에 본당에서 위령들을 위하여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미사 시작전 조금 일찍
오시어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살이공동체 주관 배동·제자 교육

일 시: 10월 9일(금) - 11일(주일) 2박 3일
장 소: 끈벙두알 프란치스코 수도원 피정의 집
주 제: 소비시대에 그리스도 따르기
강 사: 예수살이공동체 길벗
내 용: 예수님의 삶에서 찾은 자유, 기쁨, 투신
회 비: 180,000원
문 의: 예수살이공동체
02-3144-2144, 010-6750-2144

우리들의 정성(9/7 - 9/13)

● 교무금, 주일 헌금

교 무 금	5건	1,530,000원
주일헌금		901,000원
네팔 대홍수 피해 2차		576,000원

● 감사헌금

황은순	10,000원	이은춘	30,000원
구해경	10,000원	김윤주	20,000원
이동준	300,000원	정혜선	20,000원
김명진	20,000원	익명	30,000원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대전관구 면형 장학회에서
본당 순례후 200,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화답송



(후렴)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